

COVID-19 발병 전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서울 노인의 삶

Life for Community-Dwelling Older Seoulit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김 정 현*

남 혜 진**

서울시복지재단

Junghyun Kim

Hyejin Nam

Seoul Welfare Foundation

(초록)

노인은 COVID-19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은 인구 집단이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인은 이동을 자제하고 거주지 내에서 생활할 것을 권고받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전후의 상황에서 노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COVID-19가 발병하기 전이었던 2018년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도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비교하였다.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 시설 이용, 정보획득 수단, 고립사 인식 등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지역사회 시설 중 COVID-19 발병 이후 이용 빈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진 곳은 야외활동시설이었으며, 앞으로의 이용 욕구도 가장 크게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경험하는 동안 노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고립사 가능성의 위험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접촉이나 지지가 노인의 고립사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였다.

주제어 : 노인,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주저자: (우)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정현
(e-mail: jhkim@welfare.seoul.kr)

** 교신저자: (우)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남혜진
(e-mail: hyc400@welfare.seoul.kr)

(Abstract)

Older adults were at risk for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from COVID-19 as a vulnerabl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lock down' meas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lder adults were forced to stay home.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ives of older adults in situations without and with lock-down measures.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e Seoul Aging Survey in 2018 befor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were compared to those in 2022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ajor differences in the results between the two surveys were rates of visiting community facilities (e.g., senior center), information-seeking sources, and perceived risk of dying alone. Specifically, the outdoor activity areas (e.g., parks) among the facilities showed the highest rates of the older adults' having visited as well as going to visit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Due to the outbreak, the older adults have used the internet more frequently when seeking information and been aware of risk of dying alone more seriously. Th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ontact and/or support can help prevent them from dying alone. In order to deal with the social isolation of older adults who have weak social networks, it was discussed about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uld be efficiently applied to them.

Key words : Older adults, COVID-19, Social distancing, Seoul Aging Survey

I. 서 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는 2019년 발병과 함께 급속히 퍼졌고 (Lee, 2022),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COVID-19 세계적 대유행 상태(pandemic)임을 선언하였다(Ciotti, Ciccozzi, Terrinoni, Jiang, Wang, & Bernardini, 2020). COVID-19의 치명률은 여성 1.4%, 남성 1.9%이지만, 이는 고령일수록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 이하 CDC)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이었다.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COVID-19 방역은 젊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CDC, 2021).

우리나라는 COVID-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2020년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Lee, Mun, Moon, Kim, & Kim, 2021).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노인은 외부 자원으로부터 차단됨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 자주 만날 수 없어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쉽게 노출되었다(Armitage & Nellums, 2020).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은 거의 2년 이상 강력하게 유지되다가 2022년 중반을 넘어서 완화되었는데, 교육, 경제활동, 의료,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삶도 달라졌다.

COVID-19 상황 속에서 지내야 했던 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심리 및 정서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으로 사회적 고립 생활이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낮추어

주기는 했지만, 신체적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부족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나 불안,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Armitage & Nellums, 2020; C. Kim, 2022; Seong, Kim, & Moon, 2021). 특히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삶의 변화는 노인 중에서도 홀로 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등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이는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개입이 절실함을 의미한다(Moon, Kim, & Sung, 2021; J. Park & Shin, 2021; S. Park, 2022; J. Park & Hwang, 2021).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방문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나 정보획득이 필요하다. 이에 스스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개입이 절실하다(Choi & Kim, 2021; Shin, Yoon, Kim, & Kim,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한 노인의 사회 활동 제한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정신건강(예, 우울증)이나 독거노인 등 특정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 Kim, 2021; J. Kim, 2021; D. Kim, 2022; Moon, Kim, & Sung, 2021; J. Park & Shin, 2021; J. Park & Hwang, 2021; S. Park, 2022; Seong, Kim, & Moon, 2021). 또 COVID-19 상황에서 노인의 삶 전반을 다룬 연구들은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이나 표적 집단면접(FGI), 설문조사(Bae, 2022; Shin et al., 2020), 또는 소수 문항으로 구성된 전화조사(Namkung, 2021)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론에 의존하는 대신에 65세 이상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2018년과 2022년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했다. 그 비교의 목적은 COVID-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과 근래 완화된 시점에서 고령자의 삶의 차이를 탐색하여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II. 방 법

1. 분석 자료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2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2022년 조사는 6번째에 해당한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대상 및 규모는 2016년(3차)부터 65세 이상 3,000명이며, 조사영역으로는 노후생활을 비롯하여 건강 상태, 생활환경, 근로활동, 여가 활동, 존중 보호, 인구 특성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 주기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2년 사이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4차)부터는 조사 당시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고려된 영역을 추가하고 있다(J. Kim, 2019).

COVID-19 전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인식, 욕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8년(4차)과 2022년(6차)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n 2018 and 2022 Seoul Aging Survey [n (%)]

Variable		2018 Survey ($N=3,034$)		2022 Survey ($N=3,010$)		χ^2
		n (%)	M (SD)	n (%)	M (SD)	
Gender	Man	1,341 (44.2)		1,375 (44.3)		.01
	Woman	1,693 (55.8)		1,677 (55.7)		
Age			73.47 (6.34)		73.52 (6.51)	
Education	No learning	213 (7.0)		131 (4.4)		67.82***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906 (29.8)		714 (23.7)		
	Middle school graduation	735 (24.2)		677 (22.5)		
	High school graduation	900 (29.7)		1,073 (35.7)		
	University graduation	281 (9.2)		415 (13.8)		
Living alone	Living alone	680 (22.4)		658 (21.9)		.73
	Non-living alone	2,354 (77.6)		2,352 (78.1)		
Monthly households income (10,000won)			253.65 (487.17)		272.12 (185.91)	

*** $p < .001$

석하였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성별이나 나이, 지역(25개 자치구)을 기준으로 제공된 비례배분법을 활용하여 추출되었다(J. Kim & Kim, 2018). 두 차례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이 성별의 비율이나 평균 나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나이의 경우, $F < 1$). 독거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 비해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학력이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가구소득의 경우, $F=1.98$, $n.s.$).

2. 분석 방법

COVID-19 발병 이전과 그로 인한 팬데믹

이 종료된 이후인 시점, 즉 2018년과 2022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할 때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 문항들은 지역사회 시설 이용, 정보 매체 이용 현황,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고립사 인식 및 준비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서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또는 향후 이용할 지역사회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용하시는 지역사회 시설은 어디입니까? 아래의 시설별로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만족도, 이용 의향 등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었다. 지역사회 시설 중 공공여가시설(복지관, 경로당, 구청 또는 동의 주민센터), 공공 여가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문화센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등), 공공 여가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체육관, 헬

스클립, 수영장, 골프장 등), 야외공간,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에 대한 두 시기의 응답을 비교했다. 시설 유형별 이용 및 향후 이용 의향은 모두 가부나 여부로 응답하는 형태의 문항이었다. 시설 유형별 향후 이용 의향은 2018에는 지난 1년간 각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고, 2022년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시설별 이용 의향에 대하여 2018년과 2022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자 2022년 데이터를 2018년 기준으로 재가공하였다.

필요한 정보의 습득 수단이나 방법에 관한 질문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이었는데, 응답 방식은 10개의 보기(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책·잡지, 각종 홍보우편물, 공공기관 게시물, 주위 사람, 인터넷, 관공서 전화·방문 문의, 기타)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나 인식은 “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가부의 응답 형태로 측정했다. 고립사 발생 가능성을 가늠하는 문항은 “귀하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집에서 혼자 사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다’(1점)부터 ‘매우 낮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문항을 고립사 가능성으로 해석하기 위해 자료의 코딩에서는 ‘매우 높다’를 5점, ‘매우 낮다’를 1점으로 역산(reverse coded)하였다. 고립사 대비 여부는 “귀하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집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① 예, ② 아니오, ③ 준비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세 가지 답변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III. 결 과

COVID-19 발병 이전인 2018년과 발병과 함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인 2022년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현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2> 참고). COVID-19 발병 이후 노인들의 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이용 비율은 COVID-19 발병 전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복지관과 경로당 등 공공 여가시설이나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 이용률 감소 폭이 컸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VID-19 감염이나 확산 방지 목적으로 외부 활동을 제한한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Namgung, 2021; Shin et al., 2020). 그 반면에 근린공원이나 운동장, 호수, 산 등 야외공간을 이용한 노인의 비율은 높아졌다.

COVID-19가 발병한 이후 노인들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빈도는 감소했지만, 종교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 시설들을 이용하려는 의향은 높아졌다. 야외공간을 이용하려는 의향은 2018년 대비 2022년 13.6%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시설에 대해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문화시설 8.7%, 복지관 8.6%,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5.7%, 그리고 경로당은 3.9% 증가하였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의향은 1.8% 증가하

〈Table 2〉 Rates of having visited and going to visit community facilities in 2018 and 2022
Seoul Aging Survey [% (n)]

Community facilities		Having visited			Having not visited but going to visit		
		2018	2022	χ^2	2018	2022	χ^2
welfare center	Yes	13.5 (408)	5.7 (170)	117.55***	21.6 (568)	30.2 (859)	52.51***
	No	86.5 (2,626)	94.3 (2,840)		78.4 (2,058)	69.8 (1,981)	
senior center	Yes	26.3 (798)	16.9 (508)	83.62***	18.2 (406)	22.1 (553)	11.38**
	No	73.7 (2,236)	83.1 (2,502)		81.8 (1,830)	77.9 (1,949)	
gu-office & community service center	Yes	7.5 (227)	4.0 (121)	33.20***	19.2 (538)	24.9 (718)	26.78***
	No	92.5 (2,807)	96.0 (2,889)		80.8 (2,269)	75.1 (2,171)	
cultural facilities	Yes	12.1 (366)	10.4 (314)	8.41***	23.2 (620)	31.9 (861)	50.63***
	No	87.9 (2,668)	89.6 (2,696)		76.8 (2,048)	68.1 (1,836)	
sports facilities	Yes	11.6 (352)	8.4 (252)	16.69***	22.9 (614)	24.7 (681)	2.45
	No	88.4 (2,682)	91.6 (2,758)		77.1 (2,068)	75.3 (2,076)	
outdoor activity areas	Yes	73.6 (2,234)	79.8 (2,402)	267.76***	39.9 (319)	53.5 (325)	25.97***
	No	26.4 (800)	20.2 (608)		60.1 (481)	46.5 (282)	
religious facilities	Yes	49.3 (1,494)	35.7 (1,074)	122.47***	15.9 (244)	10.9 (211)	18.51***
	No	50.7 (1,540)	64.3 (1,936)		84.1 (1,295)	89.1 (1,725)	

*** $p < .001$, ** $p < .01$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에 비해 5% 감소하였다. COVID-19 팬데믹으로 실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던 야외공간은 실내 시설의 이용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이용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도 COVID-19 발병 이후 차이가 있었다(<Table 3> 참조). 노인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수단은 2018년 조사 당시 텔레비전이었는데, 역시 COVID-19 이후인 2022년에도 텔레비전은 여전히 정보를 습득하

는 가장 흔한 수단이었다. 물론 텔레비전을 가장 주된 정보획득 수단으로 여기는 비율은 2018년 69.6%에서 2022년 62.0%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정보획득 수단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인터넷을 꼽은 비율은 2018년 4.5%에서 2022년 13.2%로 약 세 배 증가하였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2018년 평균 1.8개 그리고 2022년 평균 1.9개로 COVID-19 발병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앓고 있는 질병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2018년 21.5%에서 2022년 18.5%로 감소하였다. 그

〈Table 3〉 Information-seeking sources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 [% (n)]

Information-seeking sources	2018	2022	χ^2
TV	69.6 (2,112)	62.0 (1,867)	140.47***
The people around one	19.5 (591)	20.4 (613)	
The Internet	4.5 (138)	13.2 (396)	
Newspaper	2.2 (66)	1.7 (51)	
Radio	0.7 (21)	0.5 (16)	
Public notice	1.3 (39)	1.1 (34)	
Call/visit to public offices	1.4 (43)	0.8 (25)	
Books or magazines	0.4 (12)	0.2 (5)	
promotional mail	0.3 (8)	0.1 (3)	

*** $p < .001$

렇지만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18년 50.5%에서 2022년 57.0%로 높아졌다. 또 지난 4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이를 인식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18년 46.6%

에서 2022년 64.2%로 증가하였다.

COVID-19 전후 고립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확인되었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할 가능성의 질문에 대하여 2018년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낮거나(34.3%) 때

〈Table 4〉 Risk of dying alone and its preventive measures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 [% (n)]

Variable		2018	2022	F/χ^2
risk of dying alone	Very low	13.5 (410)	12.8 (385)	81.40***
	Low	34.3 (1,039)	26.8 (807)	
	Middle	33.8 (1,026)	40.3 (1,214)	
	High	14.4 (437)	17.5 (526)	
	Very high	4.0 (121)	2.6 (78)	
	$M (SD)$	2.61 (1.02)	2.70 (.99)	13.91***
having any preventive measures of dying alone	Yes	4.1 (123)	1.6 (48)	70.68***
	No	73.8 (2,238)	70.2 (2,113)	
	No, but want to have	22.2 (673)	28.2 (849)	

*** $p < .001$

우 낮다(13.5%)고 답하였으나, 2022년에는 고립사 가능성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60.4%로 높아졌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노인은 2018년 4.1%에서 2022년 1.6%로 감소하였지만, 고립사에 대비하고 싶으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률은 2018년 22.2%에서 2022년 28.2%로 증가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OVID-19가 발병하기 이전인 2018년도와 COVID-19 대유행 이후인 2022년도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비교했다.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는 2022년 7월 수집되었는데, 해당 시점은 COVID-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년 이상 지속되다가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2개월 무렵이었다. 그 결과 노인의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단 조치로 감소했지만, 조만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이용하려는 욕구가 커진 점이였다. COVID-19 이후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줄어든 현상은 짐작할 수 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적인 외출과 모임 참석이나 노인복지관 등 평소 이용하던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 제한에 따른 결과였다(Bae, 2022; Shin et al, 2020).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이용률이 감소했던 실내 시설과 달리 그 기간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았던 야외공간은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실행되는 동안 실내 시설과 비교해 야외공간이 여가 생활이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장소로 더 안전하다는 점을 학습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COVID-19 발병 이전의 시기에 비해 근래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였다. 그동안 노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지만(Niehaves & Plattfaut, 2014),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소 정보를 얻었던 지인과의 접촉이 축소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로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Shin et al., 2020). 또 2018년에는 만 65세 미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이비붐 세대(1955-1957년생)가 2022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에 편입된 것도 인터넷 사용률의 상승에 일조했을 수 있다. 기존의 고령자들보다 학력이 더 높은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층에 편입되기 전부터 디지털 기기 등 ICT 활용에 더 익숙한 세대였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고립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COVID-19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 노인들은 누군가 돌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고립사를 대비하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동안 노인들은 여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자살 위험을 높이는 외로움이나 불안,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다(Bae, 2022; E. Kim, 2021; Shin et al, 2020). 사실상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가 제한된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노인들의 상당수가 느낀 외로움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예를 들면, 자신이 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관련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Guner, Erdogan, & Demir, 2021).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 노인 중 자신도 고립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각한 반응 비율이 2018년에는 55.8%, 2022년에는 56.7%에 달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노인들이 그 질문에 반응한 비율은 2018년 7.6%, 2022년 9.8%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홀로 살게 되면 사회적 지지와 정보가 부족한 탓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Lee, 2019). 이에 노인들의 고립사 예방이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특히 홀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Lim & Lee, 2018).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체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관측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라이프 로그(life log)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해볼 수 있다(Lim & Lee, 2018).

본 연구는 COVID-19 발병 및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을 전후로 노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서울시 사례에 국한해서 도출된 것이어서 지방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되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의 특성상 인지기능이 낮거나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답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도 결과를 해석할 때 유념하여야 한다. 심층 면접이나 사례연구 등 질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비교를 통해 더 풍부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조사 결과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노인실태조사가 병행되었더라면 더 의미가 컸을 것이다. 그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 정책의 함의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Armitage, R., & Nellums, L. B. (2020). COVID-19 and the consequences of isolating the elderly. *The Lancet Public*

- Health*, 5 (5) [doi: 10.1016S2468-2667(20)30061-X].
- Bae, G (202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the prolonged COVID-19 on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Focusing on users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7 (1), 1-1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 (2021). *Communication Resources*. Updated September. 14, 2021.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index.html>.
- Choi, E., & Kim, C. (2021). Digital divide and quality of life in old a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30 (2), 37-49.
- Ciotti, M., Ciccozzi, M., Terrinoni, A., Jiang, W., Wang, C., & Bernardini, S. (2020). The COVID-19 pandemic. *Critical Reviews in Clinical Laboratory Sciences*, 57 (6), 365-388.
- Guner, T. A., Erdogan, Z., & Demir, I. (2021). The effect of loneliness on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doi: 10.1177/00302228211010587].
- Kim, C. (2022). Analysis of depression due to change in the physical activities of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impact of COVID-19. *Korean Journal of Applied Physical Activity*, 30 (2), 89-101.
- Kim, D. (2022). Effect of changes in daily life and psychological factors due to COVID-19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6 (3), 187-196.
- Kim, E. (2021). Changes i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 (4), 2001-2016.
- Kim, J. (2019). Older adults' perspectives on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8 (2), 109-117.
- Kim, J., & Kim, Y. (2018). *2018 Seoul Aging Survey*.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Seoul: Seoul Welfare Foundation.
- Lee, E. (2019). Death anxiety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 (2), 393-408.
- Lee, H. (2022).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aused by COVID-19 and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6 (2), 197-206.
- Lee, S., Mun, S., Moon, Y., Kim, H., & Kim, N. (202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online learning caused by COVID-19: A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16 (1), 169-199.
- Lim, H., & Lee, H. (2018). A study on the

- services for managing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living along using IT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 (3), 71-78.
- Moon, J., Kim, S., & Seong, K.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COVID-19 phobia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32 (1), 285-307.
- Namkung, E. (2021). Social and economic experiences and health changes for older pers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300, 72-85.
- Niehaves, B., & Plattfaut, R. (2014). Internet adoption by the elderly: Employing IS technology acceptance theories for understanding the age-related digital divid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3 (6), 708-726.
- Park, J., & Hwang, S. (2021). A study on the life experiences of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under the situation of pandemic COVID-19 diseas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1 (2), 101-118.
- Park, S. (2022). The effect of telephone intervention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g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 (3), 175-182.
- Park, J., & Shin, M. (2021). A comparative study on depression mood experiences by gender of elderly living alon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 (6), 2155-2170.
- Seong, K., Kim, S., & Moon, J. (2021). Effects of life changes due to COVID-19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8 (2), 99-129.
- Shin, H., Yoon, T., Kim, S., & Kim, Y.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s in daily life of the elderly amid COVID-19: Focusing on technology use and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elderly welfare cent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 (4), 207-232.
- Suh, B. D., & Kwon, K. H. (2021). Impacts of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n the South Korea community in COVID-19 pandemic.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6 (1), 54-63.

Received: September 27, 2022

Revised (first form): October 31, 2022

Revised (final form): December 1, 2022

Accepted: December 5, 2022